

YANG HAEGUE

October, 2019 | 양보연

page 1 of 8

YANG HAEGUE

전시 <서기 2000년이 오면>은 시간도, 국적도, 무엇도 명확하지 않다.
그곳은 양혜규가 만든 익숙하지만 새로운 시공간이다.

Text Yang Boyeon • Photography Kim Taehwan







“중중 기자들이 ‘국가대표 작가’라는 수식어를 저에 대한 기사 헤드라인에 쓰더라고요. 사실 좀 불편한 말이죠.” 양혜규의 말처럼 그는 한국을 대표하진 않는다. “성공적인 작가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당당하다. 성공이란 말은 모호하지만, 양혜규는 말보다 작품으로 증명하는 작가이고, 그의 굵직한 이력은 성공이란 말을 비로소 선명하게 만든다. 볼프강 한 미술상 수상,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카셀 도쿠멘타 전시, 프랑스 퐁피두 센터 개인전 등 양혜규의 이름은 세계 미술계에서 수없이 언급된다. ‘한국 대표’라는 기자들의 찬사는 그래서 부정확하다.

한때 ‘노매드 작가’라고 불렸을 만큼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초청받는 양혜규가 한국을 찾았다. 그의 네 번째 국내 개인전인 <서기 2000년이 오면>을 위해서다. 1982년 발표된 민혜경의 노래 ‘서기 2000년’에서 출발한 이번 전시는, 양혜규의 말에 따르면 “중첩된 시간”과 “시계”에 관한 이야기다. “시간을 연속적인 것으로 보느냐, 불연속적인 것으로 보느냐, 관점에 따라 2000년을 보는 시점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유행가 가사로 풀어본 거죠. 가사에선 서기 2000년이 오면 가난도 없고 분쟁도 없어요. 사실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제 추측인데, 1982년에 밀레니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던 게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해요. 잘 모르고, 막연한 거죠. 노래가 남았기 때문에 저희는 1982년을 돌아볼 수 있는 거고요.” 양혜규가 포착한 ‘시간’에는 자신의 과거도 있다. 포스터에도 일부 쓴 양혜규와 그의 두 형제가 유년 시절 함께 그린 ‘보물섬’이다. “인간 세상을 그린 그림은 아니에요. 다크하고, 배에는 이상한 요괴들이 타 있고, 선량해 보이지도 않고요. ‘서기 2000년’ 가사랑은 반대죠.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것이 이런 오디디oddy 세계인 것 같아요. 신비롭고 신화적인 세계. 시간적, 공간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세계일 수도 있고요.” <서기 2000년이 오면>에는 동차 연작 2점, 방울 조각 신작 4점, 공간 전면 벽지 작품 등이 설치된다. 하지만 막상 전시장에 들어서면 작품 개수를 논하며 한 작품, 한 작품에 집중하기보다는 양혜규가 만든 또 다른 세상이라는 인상이고, 그 압도감은 상당하다. 입구 바로 앞에서는 ‘서기 2000년’이 흘러나오며 양혜규가 만든 새로운 세상에 왔음을 알린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웅장한 작품들이 관객을 맞는다. 웅장한 설치 작품들이 곳곳에 있고, 벽에는 익숙한 이미지들이 혼재되어 생경한 풍경을 자아낸다. 말 그대로 오감을 자극하는 전시다. “말하자면 양혜규의 종합 선물 세트?”라는 그의 말이 꼭 맞다.

양혜규는 편집자이기도 하다. 이미 몇 권의 책을 펴냈고, 자신과 자기 작품에 대한 함량 높은 리뷰나 비평을 아카이빙하기도 한다. 곧 큐레이터, 학예사, 평론가, 학자 등 필자 서른 명이 양혜규에 대해 쓴 에세이를 모은 책의 국문 번역본도 출간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도 한국 작곡가 윤이상과 프랑스 작가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연대기를 주관적 관점으로 교차 편집한 텍스트 작품도 선보인다. 그는 전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역사적 인물의 발자취나 사건을 자신의 취향을 담아 예술 방식으로 풀어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주제, 문화, 시

간 등 자신의 주관적 해석을 관객에게 보여주며 설득한다. “에디토리얼이라고 하죠. 창작이라기보단 편집을 통해 만들어내는 작업이니까요. 음악에선 샘플링이나 리믹스라고도 하고요. 저는 이게 현대미술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미술적 달란트로만 귀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혜규는 현대미술계의 시류를 정확히 감지하고 있고, 편승한 적은 없지만 시류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고유하다.

<서기 2000년이 오면>은 국제갤러리 서울에서 열린다. “사실 이번 전시는 국내 상업 갤러리에서 하는 전시치고는 특이한 편이죠. 행사도 많고요. 저도 화이트 큐브에 액자로 된 작품을 걸 수도 있었겠죠. 그런 전시를 못 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책임의식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상업 갤러리에서 하는 전시지만, 동시대적으로 ‘전시다운 전시’를 하고 싶었어요. 국제갤러리라면 이런 전시도 반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양혜규와 국제갤러리가 연이 닿은 건 12년 전이지만, 드디어 개인전을 열게 됐다. “연애를 100년 동안 하다 결혼한 느낌이랄까요?(웃음) 국내에서 전시를 더 자주 할 수 있으면 좋죠. 제가 25년간 활동하면서 국내 개인전은 네 번째예요. 6년에 한 번 정도 연 거죠. 바람직한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된 작가가 전시를 자주 열면 오버킬overkill이라고 하잖아요. 작가로서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고 다시 열어야 제대로 된 전시가 돼죠. 관객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요.” 그렇다면 <서기 2000년이 오면>은 양혜규의 확신에 의한 결정이었을까? “이번 전시뿐 아니라 느낌이 확 오지 않거나, 긴가민가 할 땐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대신 하고 싶으면 꼭 해야죠. 이 전시는 그래서 확신이 있었어요.”

그에게 25년간 작가로서의 삶을 돌아보면 어땠는지 묻자, 전력질주 같았다고 했다. 후회는 없다고 했다. 이제는 높아진 명성만큼 뒤따르는 엄청난 업무량과 감정 소비도 있지만 멈출 생각은 없다. “작가로서 어떻게 커리어를 마무리 지을까에 대해 메토해든 게 있는데, 거기엔 ‘잘 내려오기’라고 썼어요. 그런데 내려오기엔 성급하지 않나요? 더 가봐야죠. 저는 일단 구린 작가는 싫고요. 그렇다고 너무 각 잡는 것도 싫어요. 구리지 않으면 좋은 미술인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어쨌든 인생은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간다면 스스로 기회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전시가 끝날 때쯤 다음 전시가 막 떠오른다면 그건 정말 좋은 프로젝트가 될 거다, 라고 말해요.”

흠잡을 데 없는 커리어는 물론 그의 모교인 독일의 유명 예술 학교 슈테델슐레Städelschule에 아시아 여성 최초로 교수로 임명된 그가 더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일까? “여장부가 칼을 뽑았으면 끝까지 가봐야죠.” 양혜규는 서울에 오기 전 캐나다에 들러 다음 전시 밑그림을 그리고 왔다고 했다. 그리고 <서기 2000년이 오면> 직후에 열리는 그의 전시는 10월 21일 뉴욕 현대미술관 재개관전에 그의 설치 작업 ‘손잡이’를 전시할 예정이며, 현재 참여 중인 전시를 포함해 올 하반기에만 아홉 개의 전시에 이름을 올린다. **□**





